

# 위기의 中경제...디플레에 부동산 침체 겹쳤다

## 중국이 흔들린다

비구이위안~부동산 신탁사까지 줄줄이 위기  
소매판매·실업률 등 경제지표도 심각한 부진  
中 경제 디플레이션 진입 분석...“소비 늘려야”

중국 경제가 위기다. 생산과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세계의 공장' 또는 '세계의 시장'으로서 위치는 흔들린 지 오래다. 심각한 청년 실업에 탕평족(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면서 아예 더는 노력하지 않는 청년)이 느는 추세다. 세계 1위 인구 국가 위치도 인도에 내주었고, 인구 고령화로 미래의 경제 활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최대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부도 위기는 산업 전반은 물론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뉴시스는 4회에 걸친 기획 연재물 [중국이 흔들린다]를 통해 중국 경제의 위기 현황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 국내 금융 증권 시장, 산업 및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 본다. / 편집자 주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중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기대가 부풀었다. 세계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주목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에 각종 침체 신호가 나오면서,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엔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중국 경제지표들은 기록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다, 중국 경제의 주요 축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다.

### ◆비구이위안부터 부동산 신탁사까지...줄줄이 위기

16일 외신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을 시작으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 비구이위안은 만기가 도래한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 2종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약 302억원)를 갚지 못하면서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역대채권 중 회사채, 사모채권 등 11종의 거래가 중단됐다. 이날 비구이위안의 주가는 하루 만에 18.37%나 하락, 2007년 4월 상장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 순손실이 450~550억 위안(약 8조2000억~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들어서면서 비구이위안의 지난해 실적이 고꾸라진 것이다. 비구이위안은 2017~2022년 매출 기준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로 꼽혀 온 곳이다. 신규 주택 판매 기준으로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 ◆내수·수출 심각한 부진에 이어 부동산까지 흔들려

비구이위안으로 시작된 중국 부동산 위기는 점차 번지고 있다. 또 다른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위안양(시노오션)도 2024년 만기 2094만 달러(약 278억6000만원) 채권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해당 채권은 홍콩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중지됐다. 뒤이어 중국 부동산 신탁회사 중흥국제신탁이 약 3500억 위안(약 64조원) 규모 만기 투자 상품에 대한 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 조짐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원다그룹이 디폴트 위기를 겪다 지분 매각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 소식이 전해졌다. 외신들은 2021년 원다그룹 사태에서 시작된 중국 부동산 디폴트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기대와 달리, 각종 침체 신호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020년 1월6일 중국 상하이의 모습.

전문가들은 비구이위안 등의 부동산 위기까지 연달아 겹치면서 중국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부동산은 내수, 수출과 함께 중국 경제의 3대 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비구이위안이 중국에서 벌인 건설 프로젝트는 3000여건이나 된다.

무디스투자서비스는 보고서를 통해 비구이위안의 위기가 부동산 산업 전반과 금융시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 심리를 더욱 악화시키고 중국 부동산 부문의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급격한 둔화...“청년실업률 사실상 46.5%”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는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중국 경제 전반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성이 있다. 주택 거래를 포함해 시장 전반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는 모두 부진한 수치를 기록했다. 전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2.5% 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고 시장 전망치(4.5%)도 밑돌았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의 업종을 반영한 지표로 내수 경기를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7월 산업생산 또한 3.7% 증가하면서 예상치(4.6%)를 밑돌았다. 7월 실업률도 전년 대비 0.1%포인트 높은 5.3%를 기록했다. 당국은 이달부터 청년실업률(16~24세) 발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4~6월 각각 20.4%, 20.8%, 21.3%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거듭 경신해 왔다. 일각에선 중국 청년의 절반이 실업상태라는 주장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장단단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부교수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살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포함한 잠재적 청년실업률은 46.5%로 추산된다”고 진단했다. 이보다 앞서 나온 경제지표들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7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했다. 이는 코로

나19 확산이 한창 진행되던 2021년 2월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3으로 기준점 50을 하회했고,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민은행, 유동성공급 나서...소비지출 회복이 관건

이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단기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하지만 경제 시스템 전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같은 단기 유동성 공급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큰 상황이다. 중국 경제가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졌고, 장기 침체에 돌입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4.5%로 제시했다. 5.2%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둔화 문제가 소비지출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중국의 가계 소비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세계 최저 수준이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예상과 달리 살아나지 않았다. 또 중국 경제가 부채를 통한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시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문운천로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를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